

진리침례교회 설교 시리즈

說教

진리침례교회 설교 시리즈

說教

3

고난의 목적

김 영 균 지음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진리침례교회 설교시리즈

©2016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3. 고난의 목적

지 은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6. 11. 20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글씨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비매품〉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고난의 목적

본문: 뱀전4:12-16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가 출간한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은 일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다룹니다. 특히 불교를 포함한 많은 일반 종교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애지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제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명백히 알아야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 읽는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란 단어 자체가 “그 책”이란 뜻입니다.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컴퓨터 속이 아닌 책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는 자에게 주시는 으뜸가는 명령이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주의를 기울이라.”(딤후4:13)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은 책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합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들에서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절대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

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1-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답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는 인간에게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슬픔과 고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알고 있던 기독교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

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사53:1-2)

주의 팔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얼짱도 아니십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외모 콤플렉스는 짝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생기셨습니다. 그런데 나 또한 못생겼다면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적어도 외모에서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53:3)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당한 적이 많다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과 닮아서 그런 겁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사53:4)

예수님은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갈1:4)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이 악한 현 세상은 그 악한 자라고 하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며 통치자인 그가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위임 받아서 통치하고 있으니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이니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이 많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그런 악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요5:7).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며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태어나면 다 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엄마 배속에서 태어날 때 방실방실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아기는 악을 쓰며 옵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흰하니까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고난(trouble)의 연속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요14:1-5)

아담 빼고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모

습을 지켜보면 처음부터 계속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아기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라고 살다가, 조금 살 만하다 싶으면 사라집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슬픔을 스스로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모른다면 인생을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16:33)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갈6:7),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벧전2:20)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행14:22)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음과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약간의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인 목적으로 다시 방문했는데 바울 팀이 하는 일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믿음에 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첫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며 영적 왕국과 물질적 왕국이 동시에 임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둬야 하고 반드시 많은 환난이 따른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왜 믿지 않는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1)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하고 올바르게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고통이 생길까? 왜 고난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6:7)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과 고난 대부분은 자초한 것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팔을 심고 콩이 나오길 기대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육신에게 심었으면 고통의 결과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뿌려 놓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벧전2:20) 이 구절의 말씀처럼 잘 하고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될 때까지 이겠지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벤전3:14)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잘 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우선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서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먼저 받아서 체험해봐야 할 터인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 되고 힘이 들어야 위로가 필요하므로 그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1:3-4)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안정이 되면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물었을 때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빌3:10)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밟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신32:15)

이스라엘이 힘들 때에는 겸손하다가 잘 풀리니까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되면 이와 같은 짓을 합니다. 아담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

드십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청난 현실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벧전4:1) 예수님께서서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난을 우리 삶에 주셔야만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여차하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미리 놓아 주셨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고후12:7-10)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셨는데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바울에게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높였겠습니까? 잘못하면 쉽게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공격해 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욕은 사탄의 사자한테 얻어맞아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탄이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몸의 가시로 인해 주님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듯이 우리의 어려움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큰소리쳤지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약하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3)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고후12:9-10)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강한 척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입을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체력도 약하며 의지력도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약함을 인정하면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간파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시점 정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아직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머물러서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절대로 무너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비판하고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현 상황을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가 겸손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4) 영적 성숙을 위함입니다.

생명의 성장에는 당연히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5:1-5)

3절에서 환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이지

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상한 체험이 있는데 ‘불이 내려와 온 몸이 뜨거워서 데굴데굴 굴렀어요’ 하는 것이 것이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체험은 인내를 반복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영적체험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인내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반복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주신바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이 영적성숙에 필요하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요15:2) 여기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지치기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한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징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12장은 징계의 장입니다. 우리말로 징계라는 말은 때로는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

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12:6-11)

여기서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욕도 바울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고난을 받았습시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니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4주 훈련을 받으면 이등병이며 14주를 훈련받으면 소위입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사랑의 때”라는 말을 알고 사용

했네요. (7절) 징계를 견디면 아들로 받아 준다는 말은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면 참으로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잘 받아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기뻐시겠습니까?(10절) 이 징계를 통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징계가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기 의이며 교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고 이렇게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영광 받으실 것이며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 우리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인 것 같으나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고난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면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축복해 달라고 하고서는, “고난을 겪어야 행복해진다고 하니 저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
 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
 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영적우월감이며 교만입니다. 인간은 나
 약하지만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견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벧전3:14-15) 예수님 때
 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얻어 터져도
 싸다”라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
 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
 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
 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
 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

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2-16) 14절에서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시편 기자가 시편에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67, 71) 고난 당할 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다 지나고 나니 엄청난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방향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왜 그런 것이 생겼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목적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바르게 적용해서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 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옅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여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엠.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 라온누리

